손흥민 꾜 첫 10-10…만능 공격수 입증

토트넘의 손흥민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동점골을 터트린 후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토트넘이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EPL 아스널전 1골1도움 팀 2-1 승리 견인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단일 시즌 '10골-10도움'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정상급 만능 공격수임을 확인했다.

손흥민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득점과 도움 모두 손흥민에게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열번째였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이후 두 번째 시즌인 2016-2017시즌 14골을 시작으로 2017-2018, 2018-2019시즌 12골에 이어 올 시즌까지 네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할 만큼 해결사로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이 단일 시즌 정규리그에서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이다.

단일 시즌 10골-10도움은 만능 공격수의 상징과도 다름없다.

한 시즌에 골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공격수는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에 앞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11골 18도움)만이 '10-10 클럽'에 가입했다.

현재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통틀어서도 손흥민은 7번째로 정규리그 10-1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22골 20도움으로 리그 최초의 '20-20 클럽 가입'이라는 새역사를 쓴 가운데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10골 10도움)도 '10-10'을 해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제이든 산초(보루시아 도르트문트, 17골 16도움), 세르주 나브리(바이에른 뮌헨, 12골 10도움), 알라산 플레(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10골 10도움)가 '10-10 클럽' 멤버가 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즌을 조기 종료한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올 시즌 10골-10도움을 채운 선수가 없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018-2019시즌에도 단 2명만이 10골-10도움을 달성했다.

에덴 아자르(레알 마드리드)가 첼시 소속으로 16골 15도움을 기록했고, 맨체스터 시티의 라힘 스털링이 17골 10도움의 성적을 냈다.

2017-2018시즌에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32골 10도움), 스털링(18골 11도움), 레스터 시티에서 뛴 리야드 마흐레즈(맨체스5터 시티, 12골 10도움) 세 명만이 10-10 클럽 회원의 지위를 누렸을 뿐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일 시즌 10골-10도움을 기록한 것은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이다.

한편, 손흥민이 맞수 아스널전에서 골맛을 본 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경기만에 처음이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대결에서 2018-2019시즌 리그 컵대회인 카라바오컵 8강전(2-0 승) 때 결승 골을 터트린 적이 있지만, 정규리그에서는 그동안 무득점에 그쳤다.

데이터 분석 업체 옵타에 따르면 토트넘 선수가 아스널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것은 2012년 2월 토고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에마뉘엘 아데바요르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안방마님 체력 안배…KIA '3포수' 체제 돌입

한승택·백용환·김민식 구성

KIA 타이거즈가 무더위와 상대에 맞춘 '3포수'로 승률 높이기에 나선다.

KIA는 지난 12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앞서 내야수 홍종표를 내리고 포수 김민식을 콜업했다. 김민식의 합류로 KIA는 한승택, 백용환과 함께 3명의 포수로 전력을 새로 구성했다.

일단 무더위에 따른 '체력' 관리 차원에서 김민식 카드를 활용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한승택이 많은 경기에 뛰었다. 백용환도 무릎과 잔부상들로 상태를 살펴보면서 해야 한다"며 "날이 더워지는데 포수는 장비 착용을 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3포수' 체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KIA는 올 시즌 한승택과 백용환으로 포수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아직 풀타임 경험이 없다. 한승택은 지난해 가장 많은 105경기에 출전했다. 백용환은 2016년 80경기가 최다 출장기록이다.

여기에 포수는 다른 포지션보다 체력 부담이 많다. 지난주 연장 혈투까지 펼쳐지면서 포수들의 체력소모가 컸다.

또 12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KIA는 13일 '월요일 야구'를 했다. 이에 따라 KIA에는 7연전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민식의 콜업에는 삼성 맞춤형 전략도 숨어있다.

정상로테이션으로는 주중 3연전 상대인 삼성 라이온즈에서 좌완 투수들이 연달아 선발로 출격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누가 선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포수들 기용이 달라질 것이다"며 "삼성 좌완들이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민식을 대타로 기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퓨처스리그에서 콜업을 기다렸던 김민식은 최근 10경기에서 35타수 12안타, 0.343의 타율을 기록했다.

포수 자리를 채운 KIA는 마운드 대기자원으로 김현수를 선수단과 동행시킨다.

윌리엄스 감독은 투수진 운영에 대해서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 예보가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일단 정상적인 로테이션으로 간다"고 언급했다.

날씨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필요시에는 김현수를 선발로 마운드에 투입할 수도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2군 경기가 없는 상황이었고 상태를 보고 있다. 캐치볼을 하는 등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며 김현수의 동행에 대해 설명했다.

KIA는 '월요일 경기'에 이어 14일 대구 원정길에 오른다. 그리고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와 상대한다.

삼성과는 올 시즌 3승 3패로 팽팽히 맞서있고, 두산에는 1승 5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월요일 경기를 시작으로 긴 한 주를 보내야 하는 KIA는 '날씨'라는 변수까지 다양한 계산을 하며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펠리페 6호골… 팀은 4연패

광주FC의 펠리페가 시즌 6호골을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로 웃지 못했다.

펠리페는 지난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2020 K리그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40분 시즌 6호골을 넣었다.

김정환이 중앙에서 빠르게 돌파한 뒤 왼쪽에 있던 펠리페에게 공을 넘겨줬다. 공을 잡은 펠리페는 망설임 없이 시원한 왼발 슈팅을 날리면서 강원 골망을 흔들었다. 펠리페의 시즌 6호골.

전반 11분 조재완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간 광주의 천금 같은 동점골이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광주는 전반 추가시간에 이재권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1-2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연달아 골문이 열렸다.

후반 28분 김지현에 이어 후반 37분 조재완에게 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1-4 패배로 끝났다. 지난 시즌 K리그2 최소실점팀으로 우승을 이뤘던 광주지만 앞선 대구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4실점을 하면서 수비 고민을 안게 됐다.

강원 원정에서 대패한 광주는 15일 오후 7시 장소를 바꿔 강원과 다시 만난다. 이날 FA컵 4라운드 강원과의 경기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남드래곤즈의 뜨겁던 화력도 장맛비에 식었다.

전남은 1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K리그2 10라운드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앞서 경남FC와의 FA컵에 이어 안산그리너스와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연달아 4골을 터트렸던 전남 공격진이 침묵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전 4개의 슈팅을 날리며 안양 골대를 두드렸다.

빗줄기가 굵어진 후반전 막판 전남은 연달아 코너킥 기회를 잡으며 막판 공세에 나섰지만,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승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승점 1점을 보탰다.

전남은 15일 '강적' 전북현대의 안방으로 건너가 FA컵 4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현경 KLPGA 우승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박현경(20)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총상금 10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박현경은 13일 부산 기장군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임희정(20)과 연장 대결을 벌인 끝에 시즌 2승 고지에 선착했다.

원래 이날 3라운드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부터 내린 많은 비 때문에 3라운드가 취소됐고, 2라운드까지 13언더파 131타로 공동 선두였던 박현경과 임희정이 16, 17, 18번 홀에서 3개 홀 플레이오프를 벌여 우승자를 정했다.

/연합뉴스